



2019년 4월 7일(제923호) 시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복음에서 여러 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드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곤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시지요. 결국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추악합니다. 여인의 잘못된 모습보다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법에서는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간음하다 들킨 남자와 여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 죽임으로써 죄에 대한 응징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이었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굳이 예수님께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르치셨던 사랑, 자비에 상처되는 것이고 “용서해 주어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서는 적대

자들의 흥계를 지혜롭게 벗어나며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들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돌을 내려놓은 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따금 이 말씀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죄인이 스스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스스로 뻔뻔하게 다시 살아가도록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용서로 초대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쉽게 돌을 던집니다.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다는 명분으로, 내 생각만으로 남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이 상대의 마음을 죽이고, 실제적인 죽음까지 가져오게 될 줄은 모른 채 무심하게 던집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눈에 들은 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들은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장시진(요셉) 신부
명림(15시터)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43,16-21

회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시 필리 3,8-14

복음 본보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 음 요한 8,1-11

영성제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신태보 베드로



성인명: 신태보 베드로 (申太甫 Peter)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769?-1839년

경기도의 용인 근처에서 태어난 신태보(申太甫) 베드로는 1795년 무렵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다. 1840년 전주에서 순교한 최조이 바르바라는 그의 며느리였다.

사촌인 이여진 요한과 함께 입교한 신 베드로는 1801년 신유박해가 끝난 뒤, 용인에 거주하던 순교자의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그러다가 사촌 이 요한을 비롯하여 다른 교우들과 연락이 닿게 되자, 그들과 함께 교회 재건 운동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신자들의 성직자 영입 운동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신 베드로는 이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의 희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베드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경상도 상주의 잣골에 정착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그는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1827년 전라도에서 정해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신 베드로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상주의 포졸들과 함께 잣골로 들이닥쳤다. 당시 포졸들은 이미 체포된 신자들을 통해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나누어준 사실과 그의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 신 베드로는 이내 전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형벌을 당하면서도 신 베드로는 결코 교회 서적과 동료들이 있는 곳을 밀고하지 않았다. 또 관장이 배교를 강요할 때면, “천주교가 없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육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감사는 할 수 없이 신 베드로를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옥에 가두어 두도록 하였고, 그는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는 때때로 마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용맹한 신앙심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에 임금의 명에 따라 전주 장터(중정)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량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님께서 부족한 나를 보시며,
땅에 이리 쓰셨습니다.

"영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영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화이야기

예수님과 고발된 여인



대브뤼겔(아버지 브뤼겔), 1565년 제작
캔버스 위 그리자이유화, 24X34cm / 런던 코넬드 갤러리, 영국

사람들이 고발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집으라"고 말씀하셨다. 브뤼겔이 그린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바닥에 성경에 나오는 본 구절을 네덜란드어로 적고 계시고, 바닥에는 미처 던져지지 못한 돌들이 굴러다닌다.

이 그림은 색조를 쓰지 않고 회색톤으로 그려져(그리자이유화) 인물들은 육체에서 벗어난, 일종의 영혼의 상태처럼 보인다. 중앙에 다소 이상화되어 표현된 여인들을 둘러싼 인물 외에도, 뒤편 어둠 속에 가려진 인물들은 이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어떤 이들은 뒷걸음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담담하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인물들은 의심과 두려움, 호기심, 체념, 혹은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에 젖어있다. 알 수 없는 엄숙함과 깊은 명상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아버지 브뤼겔이 아들 브뤼겔(또한 유능한 화가였던)에게 물려준 유일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5주일: 봉의 유희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천성대(17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7일(주일)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곳: 4월 11일(목) 18: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 국장회의

때·곳: 4월 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